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전남 압도적 지지로 당선
“대통령으로의 책임과 사명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재명(61)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제20대 대선 도전 실패 이후 두 번째 대선 도전 끝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 위기 속에서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이은 4번째 민주정부의 막을 올리게 됐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국민적 분노와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내란 정권심판, 교체론이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내란정국에서 분열된 대한민국의 통합과 협치, 민생경제 회복, 외교·안보 위기 극복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새벽 12시 15분 현재 개표가 54.72%가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8.87%(938만223표)를 얻어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2.64%(816만6399표)로 2위를 확정하는 모양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7.34%(140만6825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0.93%(17만8167표)로 뒤를 이었다.

이 후보는 전남 85.89%를 최고로 광주 84.86%, 전북 83.84%로 호남에서 최고 득표율을 얻으며 압승을 거뒀다.

이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충청 등에서 50%를 웃도는 고른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다. 이 후보는 호남과 서울 등 수도권, 대전·세종·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가 3일 밤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주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충북에서 김 후보를 크게 앞서면서 사실상 이 지역에서 승부를 갈랐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20%대의 지지율에 그쳤다.

김문수 후보는 이른바 TK인 대구(72.28%)와 경북(67.01%)에서 1위를 달리고 부산과 강원에서 각각 52.35%, 48.17%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보수정당 텃밭인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에서의 보수층 결집이 두드러졌다.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대구와 경북이 본 투표에서 보수층이 집결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정국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히 세우자는 열망으로 집약됐다.

탄핵 정국부터 이어온 ‘어대명’ (여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프레임에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다시는 보수정당에 정권을 쥐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강한 염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불법비상계엄으로 인해 오월정신이 빛난 호남의 지지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밑거름이 됐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당초 지역주의를 깨고 전국적인 지지를 받을것으로 예상했으나. 선거막판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 결집이 이뤄지면서 지역구도와 진보-보수 간 대결 구도가 또 다시 드러나는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결국 대한민국이 동서로 갈리는 형국을 다시 보여주고 말았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도 개표가 진행중이라서 선부르지만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 표한다”면서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국은 격랑에 빠지게 됐다. 개표 결과 드러난 민심은 국민의 힘에 무게를 경고를 보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논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국민의힘은 책임론과 함께 재창당에 준하는 외풍을 겪게될 전망이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투표율 79.4% … 광주 83.9% 전국 1위

광주가 또 한번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순간을 이끌었다.

광주는 제 21대 대선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을 보이며 지난 17대 대선부터 이번 대선까지 내리 네 차례 대선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 21대 대선 최종 투표율 집계 결과 광주는 8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79.4%로 80%에는 미치지 못했고, 광주에 이어 전남(83.6%), 세종(83.1%), 전북(82.5%), 대구(80.1%) 순이었다.

광주는 17~20대 대선에서도 투표율이 가장 높다. 광주의 이번 대선 투표율은 앞서 치러진 네 번의 대선 투표율 중 가장 높았고,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81.5%)보다도 2.4%포인트 높았다. 광주는 앞서 높은 사전 투표율(52.12%·전국 3위)로도 전

국의 이목을 끌었는데, 결국 광주에서 시작한 내란 심판에 대한 바람이 충청과 수도권까지 불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여주면서 민주주의의 수호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5·18민주화 운동의 도시로서 ‘내란 사태’를 종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는 시민의 열망이 응집된 결과라는 것이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 ▶2면
- 승리의 요인·이재명 사람들 ▶3면
- 새 정부 과제·대통령에 바란다 ▶4·5면
- 광주·전남 현안 사업 탄력 받나 ▶6면
- 총리·장관 등 호남 인재 등용 관심 ▶7면
- 투표소 이모저모·시민도민 반응 ▶8·9면
- 코스피 5000 시대 열리나 ▶10면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